

2014 문화계 결산 ② 미술

‘세월오월’ 격랑에 광주비엔날레 흔들



지난 2~5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의 전시는 국내외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케테 콜비츠·루신 등
아침차게 준비한 특별전
시민들 관심 못 끌어

김창열·이돈홍·박재동...
유명 작가 전시 잇따라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에 큰 역할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광주·전남 미술계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전시가 유보되면서 광주비엔날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용우 대표이사 사퇴로 일단락 됐지만 케테 콜비츠와 루신 등의 작품이 전시됐던 특별전은 빛을 보지 못했고, 본행사 역시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신임 대표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선임되면서 재단은 본격적으로 개혁 작업을 시작했고, 최근 감사위원장을 지낸 전운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공립미술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광주시립미술관 신임 관장에는 중견작가 조진호씨가 지난 10월 말 선임됐다. 조 관장은 소통을 강조하며 취임 직후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등에서 청년 작가와 중견, 원로, 여성 미술인들을 만났다. 그는 미술관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레지던시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지역 미술인 자료 아카이빙 등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국내 유명 작가들의 전시도 잇따라 열렸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지난 2~5월 열린 ‘물방울 화가’ 김창열(86) 화백의 전시는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40년 넘게 물방울 하나만을 고집해온 그의 작품에서는 ‘비움’과 ‘채움’을 볼 수 있었다. 당시 불평한 몸을 이끌고 광주를 찾은 그는 전시에 만족하면서 “김창열이라는 작가가 참 관철은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전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단색화의 대가 박서보 화백, 운명로 화백 등이 함께 광주를 찾았다. 또 재미작가 변종근 씨도 광주시립미술관에 초대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서예가 화정 이돈홍(69) 선생은 서력 50년을 맞아 서울 관훈동 백악미술관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다. 일중서예대상 수상 기념으로 열린 이 전시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농익은 작품들을 선보여 국내외 서단의 호평을 받았다. 시사만화가 박재동(62)씨가 지난 5월 메이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땀방이 서당’으로 유명한 원로 만화가 윤승운(72) 화백이 나주 동신대 문화박물관에서 작품들을 선보였다.

지역 작가 중에는 담양 출신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올해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전시회를 가진 이씨는 내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2015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청받았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윤두서 특별전’은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전시 중 하나였다. 윤두서와 그의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운으로 이어지는 화화 세계를 보여주는 이번 전시에는 국보 제240호인 ‘윤두서의 자화상’을 비롯해 윤운이 그린 ‘미인도’ 등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에는 개막 한달만에 6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지난해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도 올해 자연속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행촌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행촌미술관 개관을 비롯해 지노 갤러리, 소소미술관, 솔트아트갤러리, 주안갤러리 등이 새로 문을 열었다. 지역 미술계 레지던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대안공간 미테-우그로와 (주)영무건설은 지난 4월 영무예다움 아파트 견본주택 전시장(모텔하우스)에서 지역 작가들의 레지던시를 진행하고, 미술품을 파는 하우스페어 행사를 개최했다. 담양 대담미술관은 광주와

대만을 오가며 교류 레지던시를 펼쳤다. 3회째를 맞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전면으로 무대를 옮겨 빛과 강이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특히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반면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2014’는 예산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면서 규모가 축소됐으며, 참가한 타지 화랑들도 “부산이나 대구에 비해 열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시 운영되는 사무국, 예산 추가 확보 등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원로 및 중견 미술인들이 주는 의미 있는 상인 ‘제 20회 광주미술상’ 수상작가에는 ‘용의 여인’의 화가 박소빈씨가 선정됐다. 지난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시도 잇따라 개최됐다. 지역의 독립 큐레이터 탁해성씨는 임옥상, 송숙남 등 전국 미술인들의 추모 작품을 모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고, 광주미협과 광주민미협은 광주 메트로 갤러리에서 ‘아픈 세월, 슬픔의 바다’전을 열었다. 미테-우그로도 예술공간 살구씨 스튜디오와 함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전을 개최했다. 박정용 작가는 지난 11월 제회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에서 125일 동안 진도 앞바다 물에 넣었다 끄집어낸 조각상 ‘온전히 구하리라’를 선보여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

지역 미술인들의 안타까운 타계 소식도 있었다. 조선대 미술대학 초대 교수로 한국을 떠나 뉴욕에서 활동하던 원로화가 김보현(Po Kim) 화백이 9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고, 남화의 대표작가인 한국화가 최재 문장호 화백도 지난 5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폴리 프로젝트 계속 추진

광주비엔날레 조직 대대적 개편, 시민 소통·교육 기능 강화

창설 20주년을 맞아 재단 개혁에 나선 광주비엔날레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시민 소통과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또 재단 직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광주시 위탁 사업인 ‘광주 폴리 프로젝트’는 그대로 추진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4일 “지난 10월 발족한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에서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전시의 질적 수준은 담보하되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5차례 회의를 가진 혁신위는 재단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경영효율화를 위해 광주시 위탁 사업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분리, 고유 사업에 대한 기능과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시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중과의 소통 및 교육, 지역 예술계와의 상생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정책실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부서 신설 등 조직 편제 개편에 대한 내용도 논의했다. 재단은 시민, 기획자, 작가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분리에 따라 비 행사년도에 교육 프로그램과 광주 폴리 프로젝트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혁신위는 ‘광주비엔날레 재무 및 경영 효율화’ ‘정체성 및 비전 재정립’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내년 2월 초까지 ‘재단 조직 체계 및 운영의 효율화’ ‘광주비엔날레와 지역 시민사회와의 관계’ ‘광주비엔날레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살피고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단도 자체적으로 ‘직원 역량 강화 TF팀’을 구성해 직원 재교육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말 발표된 ‘광주비엔날레 발전방안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직원 교육 훈련비 집행은 전혀 없었으며, 지난해는 36만 3000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단은 내년 1월 모두 3차례에 걸쳐 경영·조직·마케팅을 비롯해 지역과의 소통, 인재양성 등 현안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계획 중이다.

한편 전운철 신임 이사장은 다음달 중순 취임식을 갖으며, 최종 혁신안을 토대로 한 조직개편과 정관 개정안은 내년 2월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태평소 브라스 밴드 ‘취선악’ 광주 공연

28일 오후 4시 광산문화회관

전국 유일의 태평소 브라스 밴드 ‘취선악’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28일 오후 4시 광산문화회관.

태평소는 크기는 작지만 그 소리만큼은 다른 모든 국악기소리 중 가장 우렁차다. 항상 풍물굿판의 뒤에서나, 국악관현악의 선율로 연주되던 악기가 이번 공연에서는 어엿한 주인공이 된다. 전국 태평소 연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축제같은 무대다.

연주 레퍼토리는 세 가지 아리랑을 주제로 만든 태평소 합주곡, ‘The threearangs’, 유명 재즈 넘버를 편곡한 ‘sing sing sing’,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요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넙과 함

깨’, 민요 ‘벚노래’와 ‘아리랑’을 들려준다.

또 광주에서 활동하는 양태옥류 북춤 이수자인 박병주 내드름 대표, 진중한 풍물세상 굿패 마루 대표 등과 함께 태평소 협연을 한다. 또 한승철(전통연희예술단 굴림쇠 대표)의 승무 무대도 이어진다. 또 김현욱 거현재 대표와 황인상씨의 태평소 시나위 독주도 마련됐다.

‘취선악’은 17년 동안 ‘이시준 태평소연구회’를 운영하는 태평소 연주자 이시준씨가 이끄는 단체로 전통 국악에 재즈적인 느낌을 가미,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http://cafe.daum.net/nalnalihong, 문의 062-960-88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어?”

www.cjhellovision.com